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탄생... 수천억 자금조달 ‘관건’

28㎐ 할당... 중저가 라인업 확대 병원 등 기업·단체 내 우선 구축 무선 기지국 6000대 등 자금 투입 “재정능력 등 엄격한 심사 이뤄져야”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컨소시엄을 통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도전한다. /스테이지파이브 홈페이지

22년만에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서 통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사업자간 경쟁 촉진으로 과점 체제가 깨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스테이지엑스의 재무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회사가 B2B(기업간 거래)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 ◆스테이지파이브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 목표

지난달 31일 스테이지엑스가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 스테이지파이브는 ▲가계통신비 절감 ▲통

신시장 경쟁활성화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B2B와 B2C를 아우르는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스테이지엑스는 이번엔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

스 제조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또 28㎐ 대역이 가진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대학,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 유형별 선도 기업·단체 내 구축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규통신사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20년 이상 지속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나선다.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은 물론, 사업 성숙 이후 납부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방식도 변경해줬다.

### ◆수천억 조달 가능할까

관건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능력이다. 향후 운영 과정에 최대 수천억원이 필요한 만큼 일각에서는 회사가 이를 감내할 재무 능력이 있느냐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테이지파이브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271억8365만원, 55억

4859만원으로 기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재무적투자자(FI)로 신한투자증권 등을 포함해 8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테이지엑스의 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 2022년 알뜰폰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순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던 바 있다. 2022년 기준 결손금이 1812억원, 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31억원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최저 가격인 742억원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000억원대 초반이었던 기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많은 기록이다.

게다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3년간 전국 90곳의 핫스팟에 무선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통신업계에서는 기지국 구축 비용으로 수천억원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통신사업 수익성 ‘미지수’

제4이통사의 수익성 여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2020년 4월 제4이통사에 진출했지만 5년간 누적된 적자로 모회사인 라쿠텐 그룹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라쿠텐 그룹은 1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누적 적자는 총 8190억엔(7조 3675억원)에 달한다.

스테이지엑스 사업 구상이 B2B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소비자가 체감할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5G 28㎐ 대역 주파수 생태계가 미흡한 만큼 후보 사업자들이 소비자 요금제와 직결되는 B2C(기업·소비자간거래) 사업보다 B2B·B2G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것.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혈세 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 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업권 반납 상황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2024 경기 교육

미래를 향해 본격 도약합니다

교육과정

하이러닝

공유학교

업무개선

역량강화

자율 균형 미래

## 포스코, 차기회장 후보 6명 LG·SK 등 절반 ‘외부인사’

전·현직 포스코맨 3명, 외부 3명 유력주자 제외... 깜짝 외부인물 일각선 ‘호화출장’ 부당 주장도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사장) 등 포스코그룹 내·외부 인사 6명이 차기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유력주자로 꼽혔던 인물들이 다수 탈락하고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최근 불거진 ‘호화 출장’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후추위는 지난달 31일 8차 회의를 열고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함된 파이널 리스트 6명을 공개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등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주력 계열사 CEO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최종 후보에는 외부 인사가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외부 후보 중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던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인사이면서도 과거 포스코에 몸담았던 OB(전직 임원)들이 포스코 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순수 포스코맨은 김지용 원장이 유일하다. 김 원장은 해외 법인 경험이 풍부하다. 과거 인도네시아대표법인설립추진

반장을 지낸 바 있다. PT.KP 법인장과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법인장을 맡았다. 광양제철소장, 안전환경본부장 등을 역임하다 현재 미래기술연구원장과 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김 원장은 내부 후보자 중 최정우 회장과 연결 고리가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외부 후보군 중 권영수 전 부회장과 김동섭 사장, 우유철 전 부회장은 LG맨, SK맨, 현대맨 등 4대그룹 출신이다. 권 전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이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상황에서 배터리 제조사 CEO와 배터리협회장까지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LG그룹에서 ‘재무통·최연소 사장’으로 불려온만큼 지주회사 체제가 된 포스코그룹을 이끄는 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김동섭 사장은 SK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 기술원 원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 2021년부터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올랐다. 주로 정유·에너지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은 인물이라 이번 파이널리스트 포함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우유철 전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우주항공,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을 두루 거친 ‘현대맨’이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에서 커리어를 쌓아 오다 일관제철소가 동과 함께 포스코와 견줄 만한 철강회사로 도약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을 이끈 인물이다.

나머지 외부 후보 2명은 전직 포스코 임원이다. 외부 인사라고는 분류되지만 오랜 기간 포스코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조직 내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